

## 유몽인의 중국사행 관련 증서류 고찰

윤세형\*

<차례>

1. 서론
2. 증서류 내용분석
  - 1) 문장에 대한 자부심과 회재불우
  - 2) 봉당제도 비판
  - 3) 중국 사행제도 관련
  - 4) 경세적 인식
  - 5)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3. 결론

### <국문초록>

유몽인은 국내외로 혼란했던 당시 조선의 정치와 군사, 사회경제 및 학문과 사상, 문학 방면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을 남긴 경세가이자 문장가였다.

유몽인은 3차례 중국사행을 하였다. 『於于集』에는 유몽인이 중국 사행하는 사신에게 써 준 증서류가 총 24편 수록되어 있다. 증서류는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유몽인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본고에서는 증서류를 문장에 대한 자부심과 회재불우, 봉당제도 비판, 중국 사행제도 관련, 경세적 인식,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유몽인의 증서류에는 봉당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월사 이정귀에게 써 준 증서류는 3건이다. 그 중 2건을 고찰하여 ‘봉우의 도’와 봉당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유몽인의 심리상태를 확인하였다. 유몽인은 주역 팔괘에 비유해 봉당정치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유몽인의 증서류는 중국 사행제도와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사신 선발, 각 부서의 역할, 사행경비 조달, 역관의 부정행위, 문금제도에 대한 비

\* 세명대학교 강사

관, 중국 유학에 대한 열망 등을 확인하였다.

유몽인의 증서류에는 실용적인 경제적 인식이 많이 나타나 있다. 실질적인 민생에 힘쓰지 않고 헛된 공론만 일삼는 조정을 비판하였고, 중국에 가면 나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라고 부탁하였다.

『於于集』에는 중국사행을 전송하는 送詩 12편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유몽인의 내면의식과 시대상황 인식이 잘 드러난 두 작품을 살펴본다. 1619년 송시에서는 후금의 세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유몽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 유몽인, 중국사행, 증서류, 送詩, 봉당제도, 경제적 인식

## 1. 서론

유몽인(1559~1623)은 3차례 중국사행을 하였다. 1591년 겨울에는 질정관으로 첫 번째 대명사행을 하였다. 1596년 겨울에는 진위사 서장관으로 두 번째 대명사행을 하였다. 1609년에는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사 정사로 세 번째 대명사행을 하였다.

유몽인의 『於于集』은 원집 6권과 후집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 권 1~권2에는 시, 권3~권6에는 문이 실려있다. 후집도 권1~권2에는 시, 권3~권6에는 문이 실려있다.

유몽인은 17세기 초반 문인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증서류를 남겼다. 『於于集』에는 유몽인이 중국 사행하는 사신에게 써 준 증서류가 총 24편 수록되어 있다.(도표#1 참고) 『於于集』에는 중국사행을 전송하는 별도의 送詩도 총 12편 수록되어 있다.(도표#2 참조)

증서류에는 낙척불우한 삶을 살았던 유몽인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유몽인의 뛰어난 문장가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봉당제도에 대한 비판, 경제적 인식, 중국 사행을 둘러싼 여러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몽인의 산문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익철은 유몽인 산문의 특징적인 어법으로 ‘역설적 어법’과 ‘우언과 풍유의 어법’을 제시하였다.<sup>1)</sup> 안세현은 『於于集』 소재 87편의 증서류 산문 전체를 개관하고 友道의 붕괴에 대한 慷慨의 토로, 不遇者에 대한 반어적 위로와 권면, 정치현실에 대한 寓意的 비판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문장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國語〉, 〈戰國策〉의 問答法과 寓言, 압운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당대 정치현실을 비판하였다고 보았다.<sup>2)</sup> 이승수는 유몽인은 관습적이고 범상해지기 쉬운 送書를 역동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문장으로 축조해냈다고 평하였다.<sup>3)</sup> 또 유몽인의 중국 연행관련 산문 34편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연행로가 지나는 문명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였다.<sup>4)</sup> 김홍백은 유몽인 산문의 경세의식과 글쓰기 방식을 반어와 문답을 통한 정치현실 비판, 우의적 풍자, 우언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sup>5)</sup>

필자는 당시 문인중 유몽인만큼 증서류를 많이 쓴 작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유몽인의 일생은 중국사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불우했던 평생을 중국사행을 반추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1)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서, 1998.

2) 안세현, 「유몽인의 증서류 산문 연구」,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9.

3) 이승수, 「유몽인의 연행체험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3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333쪽.

4) 이승수, 「연행로의 문명로적 위상 검토, 그 의의와 한계-17세기 초 유몽인의 산문을 중심으로」, 『언어문화』 41, 2010. 참고.

이승수는 유몽인의 중국 연행관련 산문이 34편이라며 도표로 제시하여 본고의 24편과는 차이가 있다. 이승수의 도표에는 월사 이정귀에게 주는 詩序(권3) 1편이 빠진 반면, 유서장관 별장첩 서문(권3), 만수절 관련 詩序, 자은사 詩序, 심양 거자 두 형제에게 준 詩序(권4), 중국 예부에 올린 정문(권5), 행산에서 꿈을 기록한 詩序(후집 권3), 김서장관에게 써 준 초천기, 중국 예부에 올린 정문(후집 권4)등 11편이 추가되었다. 이들 11편은 중국 연행과 관련되지만 중국 사행을 전승하는 증서류가 아니다. 또 이승수의 선행 논문은 연행로가 지나는 문명로로서의 의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 김홍백, 『유몽인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아니다. 당시 중국사행을 떠나는 많은 자들이 유몽인에게 증서를 부탁하였고, 유몽인은 당시 문인중 누구보다도 많은 증서류를 이들에게 써 주었다. 유몽인은 증서류를 통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맘껏 과시하고 의론을 드러내었다.<sup>6)</sup>

본고는 유몽인이 중국 사행을 가는 사신에게 써 준 증서류 24편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사행을 전송하는 별도의 送詩 12편도 논의에 포함한다.<sup>7)</sup> 이를 통해 유몽인의 중국사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증서류 내용분석

증서류의 제목은 대개 送序, 贈序, 別序 등으로 표기되었다. 증서류를 쓴 시기는 1597년에서 1620년 사이에 분포하는데 1610년에 쓴 작품이 가장 많다. 유몽인이 관직에서 물러나 불우한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증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인물은 유몽인보다 연장자가 5명이고 연하자는 19명이다. 형식은 序로만 구성된 것이 11편이고, 送詩가 부기된 것이 13편이다. 송시는 7언 율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1) 문장에 대한 자부심과 회재불우

유몽인은 증서류에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으며, 당시의 봉당정치의 구조 속에서 쓰임을 받지 못함을 괴로워했다.

지금 중국에 사행 가는 자는 한결같이 나에게 시문으로 전별해줄 것을 바라

6) 유몽인은 문장은 모든 글월 가운데 우두머리라며 시짓기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於于集』 후집 권4, 〈答崔評事有海書〉, 今之學者, 喜作小詩而不事文, 文者文章之首, 而吾道之翼也, 而世人皆忽之.

7) 『於于集』에는 지방에 부임하는 자에게 써 준 증서류도 36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는데 나는 대체로 사양하지 않고 반드시 나의 오장육부를 끌어내어 내 진심을 다 드러내었다. 진실로 여러 공들이 나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지금 중국에 사행 가는 자는 한 해에만 대략 십여 명이고 사람마다 나에게 시문을 구한다. 내가 조정에서 벼슬살이한 지 이미 20년인데, 똑같은 일에 대해 똑같은 말로 글을 지어 허다한 청탁에 응하는 일을 거르는 해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과 뜻이 다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예전에 나는 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나귀에다 연자방이를 메고 돌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귀가 종일토록 밟고 돈 곳은 모두 전에 밟은 곳이었다. 지금 내가 만일 억지로 글을 써준다면, 나귀가 연자방이를 메고 같은 곳을 뱅뱅 도는 것과 가깝지 않겠는가.<sup>8)</sup>

유몽인이 중국 연행 사신에게 얼마나 자주 증서를 썼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에 사행 가는 많은 자들이 유몽인에게 증서를 부탁하였다. 유몽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장을 인정해 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증서를 써 주어 자신의 의론을 개진하였다. 유몽인은 벼슬살이한 지 20년인데<sup>9)</sup> 똑같은 일에 대해 똑같은 말로 글을 지으니 생각과 뜻이 다했으니, 이는 마치 나귀가 연자방이를 돌리는 격이라며 판에 박힌 글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오장육부를 끌어내어 진심을 다 했다는 말에서 증서류 문장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정사가 채전을 주면서 글을 달라고 하였고, 부사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지금까지 벽에 꽂아두기만 했다. 죽하께서 글을 구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역

8) 『於于集』 후집 권3, 〈奉驢冬至副使申季收令公詩序〉, 方今使于天朝者, 咸望余驢以詩文, 余略不辭 必刮胃蕩腑, 以盡余愴款者, 誠以諸公所與有素者. (중략) 方今使于天朝者, 歲率十餘人, 人求余詩文. 余之仕于朝已二十年, 以一般事賦一般語, 應許多求無虛歲, 思竭而意罄, 若之何. 昔余之中原, 見人用驢駕磨終日, 旋所踏皆舊跡. 今余若強之, 不幾於磨驢之踏跡乎.

9) 유몽인은 1589년(선조22) 31세 나이에 증광문과 三場에 모두 장원하여 조정에 진출하였다.

시 모두 잊고 지냈다. 지금 이틀 만에 세 편의 글을 어찌 다 쓸 수 있겠는가. 비록 말에 기대어 격문을 짓는 솜씨를 가진 사람도 손을 내저으며 사양할 터인데, 하물며 지금 나의 졸렬하고 둔한 솜씨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먼저 부사에게 줄 수천 글자의 송서 초고를 짓고 정사에게 줄 시 70운을 짓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러나 써야 할 세 편의 글 중 하나를 빠트린다면 혐의를 두고 후박을 구별한 것이니, 金友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는가.<sup>10)</sup>

1617년 서장관 金鑑(1566~?)을 전송하는 증서에서는 삼사신에게 모두에게 증서를 써 주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정사는 李尙吉, 부사는 李昌庭이었다. 유몽인은 이틀 만에 세 편의 글을 어찌 다 쓸 수 있겠느냐고 너스레를 떨다. 그러나 부사, 정사를 전송하는 장문의 글을 하루만에 완성하고 이어 서장관을 전송하는 글을 완성하였다. 글 밑에는 38행의 歌를 부기하였다. 문장실력을 맘껏 과시하고 있는 유몽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이 있구나! 하늘이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뺏어가고 하늘이 부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너뜨리니, 옛날 어진 선비들이 마음이 괴롭고 생각에 걸린 뒤에 얻게 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근래에 보건대 북쪽 오랑캐가 遼 지역을 막아서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뽑을 때 반드시 이전에 좌천된 사람이나 한창 견책을 받고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이들이 앞뒤로 요동 길을 이어 나가서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관직을 높여주고 공훈을 매기는 은전이 오로지 이들에게 돌아가고 국가가 입은 천자의 영광은 또 예전보다 배가 된다. (중략) 나 같은 자는 백 발이 되도록 독서하여 지은 시와 문장이 모두 수천 편이 되니, 공이 떠나는 길에 부처 중국 조정의 대부와 선비들에게 널리 질정하고자 하는데 공이 그렇게 해주시겠는가?<sup>11)</sup>

10) 『於于集』 후집 권3, 〈送金書狀赴京歌序〉, 日者, 首价辱彩牋索語, 副价亦然, 抵今猶插壁. 暨聞足下求, 亦都忘, 今並日三篇, 惡能逮. 雖倚馬揮檄者手, 猶掉臂辭之, 矧今拙鈍. 遂先草副价序數千言, 却賦首价詩七十韻, 則日已夕. 然於三關一, 是存形跡別厚薄, 得無負金友乎.

1608년 柳澗(1554~1621)을 전송하는 글이다. ‘하늘이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뺏어가고 하늘이 부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곤궁을 겪은 후에야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sup>12)</sup> 이는 중국 사행의 험난함을 겪고 나면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사신을 뽑을 때 반드시 좌천된 사람이나 견책을 받고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고 하였다.<sup>13)</sup> 명청교체기인 17세기초는 중국사행길이 가장 험난했던 시기에 속했다.<sup>14)</sup> 중략 이후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에서는 유몽인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지금 이 난초는 형주의 준마나 연 지역의 두견새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남방에 토착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인목이 육안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보면서도 난초를 가리켜 썩이라 하고, 맥문동 하나라도 얻으면 수천 리 밖에서 어깻죽지가 붙어질 정도로 가져오니, 진짜 난초가 죽어서 절로 문혀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부디 그대는 성심으로 구하여 난초 하나를 우리 땅에 옮겨왔으면 한다. 우리 땅의 가시덤불 사이에서 멀리까지 향기가 전해지는 가짜가 아닌 진짜 난초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sup>15)</sup>

11) 『於于集』 권3, 〈透柳老泉澗朝天詩序〉, 有心哉. 天欲予之, 必歛之, 欲扶之, 必傾之. 古之賢士, 困心衡慮而得者皆此也. 近觀北虜梗遼, 我國揀使才, 必以曾左授者, 方譴專者, 前後項領於遼之路, 然其竣事而還, 增秩紀勳之恩, 專歸此輩而國家之荷天子榮褒, 又有倍於前之日. (중략) 如余者, 白首讀書, 所著詩文, 俱累千篇. 願因公之行, 廣質於中朝大夫士, 公其肯否.

12) 『孟子』〈告子下〉 1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13) 유몽인이 1609년 정사로 임명된 것도 걸끄러운 사람을 선발한 측면이 강했다. 유몽인은 1608년 1월 28일 도승지 제수되었다. 하지만 이 직위에 오를 못했다. 그해 2월 1일 광해군 즉위하고 2월 11일 탄핵을 받았다. 1609년 명나라 만력제의 생일 축하 사절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고, 논란 끝에 유몽인이 정사로 낙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수(2012), 앞의 논문, 209~211쪽, 235쪽.

14) 柳澗은 1620년 진향사로써 바닷길을 이용하여 중국에 사행을 떠났다가 귀환 도중에 배의 침몰로 진위사 朴彞敍, 서장관 丁應斗 등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1610년 성절사 서장관 金大德(1577~1639)<sup>16)</sup>을 전송하는 글은 진짜 난초를 구해올 것을 부탁하는 우언의 형식으로 되어있다.<sup>17)</sup> 글 서두에서는 우리나라 남방에 난초가 자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며 이는 난초가 없어 서가 아니라 육안<sup>18)</sup>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글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조정 사대부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진짜 난초가 땅에 묻히는 상황은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쓰임을 받지 못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진짜 난초는 ‘유몽인 자신’과 ‘중국의 좋은 문물과 제도’를 암시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보인다.<sup>19)</sup>

고생은 진사시 장원으로 내 자식 유약과 동기이다. 어사의 직임을 맡아 중국에 동지를 하례하러 떠나면서 여러 차례 유약을 통해서 나에게 하소연하기를, “차라리 떠나지 않을지언정, 떠난다면 상국의 글이 없으면 안 된다.” 하였다. (중략) 고생이 내 글을 받아서 연로에서 자랑하고 또 경사에서 자랑하고 또 정치하는 자<sup>20)</sup>에게 자랑하며 ‘나는 동국 제봉공의 아들이다. 길을 떠날 적에 아무

15) 『於于集』 권3, 〈送聖節使書狀金大德序〉, 今此之蘭, 非如荊之馬燕之鵠, 卽吾南之土着而不之知, 無他, 東人之眼, 肉也. 瞪而視之, 謂之曰蕭艾, 得一麥門冬, 賴人肩于數千里外, 宜夫眞蘭之死以自晦也. 願君心誠求之, 移一本于我土焉. 安知我土荊棘之中, 不有聞遠之馨, 不假而眞者乎.

16) 金大德의 본관은 평산, 자는 得之이다. 폐모론에 극력 반대하다가 삭직 당하였다. 인조반정 후 사간이 되었고, 그 후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17) 유몽인의 문장은 우언을 특징으로 한다. 유몽인이 관심을 가지고 문장에 적극 활용한 것은 《莊子》의 문장수법이었다. 유몽인의 산문중에는 《戰國策》, 《左傳》, 《國語》를 본떠서 지은 글이 다수 등장한다. 『於于集』 권5, 〈與尹進士彬書〉에는 유몽인의 문장론이 잘 나타나 있다.

18) ‘肉眼’은 불가에서 쓰는 용어로, 중생의 육신에 갖추어져 있는 눈을 가리킨다. 이는 내면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밖의 형상만 바라보는 것을 비유한다.

19) 열상고전연구회 학술발표회(2020, 11, 7)에서 난초는 ‘중국의 좋은 문물과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토론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기한 4연 20행의 送詩에서 ‘아름다운 난초가 어찌 대국에만 있으리오 우리나라에도 있다네’ 구절을 보면 이 지적에 의구심이 든다.

20) 원문은 ‘木鐸者’이다. 『論語』〈八佾〉“天將以夫子爲木鐸.”의 朱熹注에서 “목탁은

개가 서를 써 주었다.'고 한다면, 비단 고생의 이름이 내 글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글 또한 제봉공에 힘입어 오랜 세월 썩지 않고 전할 것이다.<sup>21)</sup>

1613년 서장관 高用厚(1577~?)를 전송하는 글이다. 서두에서 진사시 장원을 한 고용후가 유몽인 자신의 아들 柳淪과 동기인데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송별의 글을 부탁했다는 말을 내세워 은근히 자신의 문장 실력을 과시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증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중국에 알려지기를 기대하였다. 고용후가 의병장 제봉 고경명의 아들이므로 그의 명성을 통해 자기의 글이 중국에 알려지기를 바란 것이다.

## 2) 봉당제도 비판

유몽인의 삶에는 특정한 정파적 편향성이 보이지 않는다.<sup>22)</sup> 그러나 유몽인은 봉당정치의 구조에서 불우한 삶을 살았다.<sup>23)</sup> 유몽인의 증서류에는 봉당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政教를 베풀 때에 혼들어 여러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21) 『於集』 권4, 〈送高書狀用厚序〉, 高生, 吾豚犬淪進士魁也. 帶御史賀冬至于中朝, 數悲淪來訴余曰, 寧無行, 行不可無相國語. (중략) 高生乎, 其取余言, 誇之沿路, 又誇之京師, 又誇之木鐸者曰, 我東國霽峰公之子也. 其行, 某序之云爾. 非獨生之名賁余文, 余之文亦賴霽峰公, 偕不朽於千百歲矣.

22) 북인에 속하면서 북인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서인에 동조하면서 서인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은 것이 유몽인의 정치적 입장이었다. 김홍백(2016), 앞의 논문, 194쪽. 유몽인이 죽기 한해 전 쓴 글에서도 자신은 정치적 봉당과 관련이 없는데 그 사이에서 회생이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於集』 권5, 〈與楡岾寺僧靈運書〉 참조.

23) 선조때인 1575년 東西로 分黨이 되었고 1589년 기축옥사와 1591년 세자책봉을 거치면서 東人은 다시 유성룡·김성일 중심의 南人과, 이산해·정인홍 중심의 北人으로 갈라지게 된다. 임진왜란 후 북인은 다시 정인홍·이이첨·허균 등의 大北과, 우경영·박승중 중심의 小北으로 나뉘어진다. 1608년 2월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유몽인의 나이 50세) 1623년 인조반정까지의 15년간은 대북과 및 반정 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침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1623년 인조반정 직후 유몽인은 〈孀婦詞〉로 인해 아들 柳淪과 함께 처형되었다.

유몽인이 월사 李廷龜(1564~1635)에게 써 준 증서류는 3건이다.<sup>24)</sup> 그 중 1604년과 1620년 증서를 고찰하여 유몽인의 이정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몽인은 과거 급제 전 이정귀와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하였고, 둘 다 문장이 뛰어나 중국 사행과 접반사로 외교적 업무를 담당한 공통점이 있다. 1604년 월사에게 써 준 증서에서는 서두에 ‘봉우의 도’를 내세우고 이것이 글 끝까지 전개된다.<sup>25)</sup> ‘乎’로 끝나는 열 한 단계의 질문으로 당시 봉당 상황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문장 수사법에서 설의법 사용은 강한 인상을 준다.

인심은 날로 야박해지고 세도는 온통 변하여 평지에서 풍파가 한 번 일어나면 비록 형제간일지라도 끝까지 보존할 수 없거늘, 성징과는 백발이 되도록 처음과 같이 서로 아끼고 있다. 그 서로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 한쪽에만 사사로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아끼는 것이다.<sup>26)</sup>

유몽인은 봉당으로 인해 형제간일지라도 끝까지 할 수 없는 각박한 세태를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월사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분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편당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은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혹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한 쪽을 사사로이 여기고 한 사람을 뒤로 팽개친다면

24) 『於于集』에는 이정귀의 1616년 사행, 1620년 사행, 1604년 사행의 순서로 실려있다. 유몽인이 월사의 네 번 사행중 세 번이나 증서를 써 준 것은 그만큼 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몽인은 이정귀와 어릴때부터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논의에서 제외된 1616년 증서는 월사의 문장이 중국에 널리 드러났음을 칭송하고 있다.

25) 『於于集』 권3, 〈贈李聖徵廷龜令公赴京序〉 참고.

26) 상동, 人心日薄, 世道萬變, 風波一起於平地, 雖兄弟莫保始終, 而與聖徵相愛, 白首如初, 相愛者何愛. 其不私於一而不負于一人乎.

나는 장차 그 홀로 있으면서 넓게 교유를 맺을 것이다. 성정이 연경으로 떠나려는데 따로 전별할 게 없기에 이것으로 전별을 삼을까 하는데 괜찮겠는가?<sup>27)</sup>

글의 마지막에서는 월사에 대한 당부이면서 따끔한 충고가 들어 있다. 만약 사적인 봉당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을 팽개친다면 봉우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란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월사가 봉당의 길로 가지 말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증서의 형식을 빌어 완곡히 전하고 있다.

천하의 일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거스르는 것인가?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무엇이 올곧고 무엇이 사악한 것인가?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이 폐기되는 것인가? 무엇이 펼쳐지는 것이고 무엇이 막히는 것인가? 무엇이 죽는 것이고 무엇이 사는 것인가?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중략) 오직 해야 되는 일이면 실행하고 해서 안 될 일이면 실행하지 않아 나에게 있는 것을 다스릴 뿐이다. 내가 천하의 일에 대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중략) 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 뒤에 그 말을 잊었기에 마침내 그를 위해 시를 짓노라.<sup>28)</sup>

1620년 증서에서는 유몽인의 복잡한 심사가 드러나 있다.<sup>29)</sup> 유몽인은 옳고 그름, 순종과 거역, 올곧음과 사악함, 죽음과 삶 등 반대되는 속성을 반복 제시하며 질문을 던진다.<sup>30)</sup> 이어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27) 상동, 或不然, 自私其一而後一人, 吾將任其獨而從其博乎. 聖徵將赴京, 余無贖, 請以此爲贖可乎.

28) 『於于集』 권3, 〈奉別謝恩奏請使李月沙廷龜四赴燕山詩序〉, 天下之事, 奚是奚非, 奚順奚逆, 奚同奚異, 奚正奚邪, 奚起奚廢, 奚張奚歛, 奚死奚生. 又其所以使之者奚. (중략) 惟其可爲也而爲之, 不可爲也而不爲之, 治在我者而已. 吾於天下事, 何哉. (중략) 余欲有以言之, 而俄而忘其言, 遂爲之詩.

29) 유몽인은 1620년 당시 仁穆大妃에 대한 폐비론이 일어나자 收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되어 西湖에 우거한 상태였다.

30) 여기서 ‘옳고 그른 것[是非]’과 ‘올곧고 사악한 것[正邪]’은 구분해야 한다. ‘是非’는

말은 붕당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중략 이후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스릴 뿐 천하의 일에 대해 어찌 할 수 없다며 현실에 체념하고 약간 비껴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나 말을 잊었다며 말을 흐리고 있다. 유몽인은 이 글에 이어 7언율시 5수를 지어 복잡한 심사를 표현하였다. 상대방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짧은 시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몽인은 자기의 문학적 재능을 자부하였고 이정귀 또한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이정귀는 당시 조정에 쓰임을 받았으나,<sup>31)</sup> 유몽인은 재야에 폐기된 상태였다. 당시 이 복잡한 심사가 이 글에 잘 드러나 있다.

1612년 동지사 趙存性(1554~1628)을 전송하는 증서는 조정 인사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하였다. 서두에서는 둘 다 직언으로 인해 고행을 당한 과거를 회상하였다. 글 마지막에서는 사행 인원 선발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나는 여러 번 표문을 받들고 사행을 가본 적이 있어서 연경으로 가는 길은 문 앞의 뜰처럼 익숙하다. 다만 만 리의 사행 길은 우리 공처럼 노쇠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만약 공을 궁궐에 머물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올곧은 말을 진언하게 하고, 만 번 죽더라도 개의치 않는 마음을 분발시켜 조정에서 크게 꺼리는 바를 꼬집어서 지적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게 한다면 국가에 어찌 작은 보탬만 되겠는가. 안타깝도다! 나는 언관이 아니라서 말을 하려다 다시 삼키노라.<sup>32)</sup>

사실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고 ‘正邪’는 행동의 영역이다.

31) 대북파가 집권하면서 서인이었던 월사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지만 광해군의 월사에 대한 처우는 특별했다. 이는 월사가 한때 광해군의 師傅였고, 광해군이 세자로 어렵게 책봉되는 과정에서 명에 보낸 咨文과 奏文이 모두 월사의 손에서 나온 이유와 당시 명청교체기로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있던 전문 외교가인 월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고전번역원 『月沙集』 해제 참조.

32) 『於于集』 권3, 〈愛直送趙遂初存性賀冬至于燕京序〉, 余嘗累忝奉表, 慣燕路猶夫

유몽인은 자신의 사행 경험을 거론하며 사행길의 고단함을 연로한 조존성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만약 조존성을 사신으로 보내지 말고 궁궐에 머물게 하여 직언을 하게 한다면 나라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였다.<sup>33)</sup> 당시 집권층에서 꺼림칙했던 인물을 사행원으로 발탁한 것을 애들러 비판한 것이다. 유몽인은 자신이 언관이 아니므로 말을 하려다가 억제한다고 하였다. 잘못된 조정 인사에 대한 불만을 애써 참는 정황을 느낄 수 있다.

①坎을 가까이 하고 離를 공격하여 離와 사이가 벌어지자 坎 또한 그 우호를 단절하여 우물에 밀어 넣고 돌을 던졌다. 쇠가 쇠를 부식하고 물이 물에 부딪치니 벗을 얻은 의미가 없어졌다. 마침내 떠나 艮에 귀의하였는데 艮은 산이고 멈춤이니, 곧 나의 서재 이름이다.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귀의하였으니 시의에 합당하다. 작년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고향인 고흥에 누웠다. ②저르기 지금의 사람들이 모두 兌은 후하고 坎은 박하다고 말하는데 슬프다. 정말로 兌은 금의 날카로움이 있으나 드러내놓고 손을 들어 한 번 찌른 적은 없다. 저들은 습감과와 같은 당여로 걸핏하면 번번이 창을 거꾸로 잡고 너댓 번을 찔러도 그치지 않는다. (중략) ③비록 그러하나 주재하는 것은 乾이니 저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만약 원한이 있다는 이유로 저들을 탓한다면, 이는 주역을 모르는 것이다. 마침내 마음이 편안해지고[兌] 밖으로 겸손해졌다[巽]. ④나와 형은 하루 이틀 사귀 사이가 아니고 한 마을에서 공부한 사이이다. 그러니 숨김없이 육장을 다 내보이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제 형이 연경으로 떠나는데 나는 마침 고향으로 돌아간 뒤이니, 형이 돌아와 나를 찾을 때 나는 필시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에 있으리라. 훗날 형이 득의하여 일을 사행할 때 坎, 離, 辰, 兌의 봉당을

---

戶庭，顧此萬里之行，非哀謝如我公者所堪。若使留公禁闈，朝夕進讜言，奮萬死不顧，觸朝家大諱而直斥之如前爲也，則於國家豈小補哉。惜乎，吾非言事者，欲吐而復吞。

33) 趙存性은 유몽인보다 나이가 다섯 살 더 많다. 조존성은 광해군의 생모추존에 반대하여 10여년간 파직당하였다가 인조반정 뒤에 복직하였다.

빨리 제거하고 봉당이 없는 땅으로 나를 초대하기 바란다.<sup>34)</sup>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단락구분을 하였다.)

1598년 동지사 鄭曄(1563~1625)을 전송하는 증서는 주역 팔괘에 비유해 봉당정치를 비판하였다. 주역 팔괘는 ☰(乾), ☱(兌), ☲(離), ☳(辰), ☴(巽), ☵(坎), ☶(艮), ☷(坤)으로 구성되어 있다. ☰(乾)과 ☷(坤)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기본이 되는 괘이다. ☳(辰)과 ☴(巽), ☵(坎)과 ☲(離), ☶(艮)과 ☱(兌)는 각각 우레와 바람, 물과 불, 산과 연못을 상징하며 음양이 대를 이룬다.

①에서는 북인, 남인의 봉당정치에서 소외되어 정치에서 물러난 유몽인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였다. 북인과 남인이 서로 치열히 싸워 자기는 艮卦, 곧 산으로 귀의하였다고 하였다.<sup>35)</sup> 坎卦는 북인, 離卦는 남인을 비유한다.(주역 후천8괘도에서 坎卦는 북쪽, 離卦는 남쪽을 나타낸다.) ②에서는 서인보다도 북인이 더 당여를 만들어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비판하였다. 兌卦는 서인을 비유한다.(주역 후천8괘도에서 兌卦는 서쪽을 나타내며 金을 상징한다. 주역에서 坎이 중첩된 ‘習坎卦’는 ‘험난함이 겹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sup>36)</sup> ③에서는 나라를 주재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인식과 봉당이

34) 『於于集』 후집 권3, 〈送鄭時晦曄赴京序〉, 及夫右坎攻離, 既與離爲克, 而坎又自絕其好, 擠之井而下之石. 金蝕金水激水, 得朋之義蔑矣. 遂去而歸于艮, 艮者山也止也, 卽余菴號也. 止其官而歸于山, 時義正矣. 去年, 投冠歸去, 臥高興故山. 竊自悲今之人咸稱兌厚坎薄者. 信矣, 兌者金之銳也, 而未曾顯加手一刺. 彼以習坎之體黨, 動輒倒其戈, 至四五擊而不已. (중략) 雖然, 其所主宰者, 乾也, 非彼所擅爲. 若因以怨尤彼, 是不知易也. 遂泰于中而巽於外. 余與兄非一日之好, 麗澤乎里閭者, 宜披露六臟而無隱. 今兄之赴于燕, 適會余歸山之後, 逮兄之還而問余也, 必在山之南水之北矣. 他日兄之得意而施設, 須亟去坎離震兌之朋, 邀余於無朋之地.

35) 유몽인의 별호 ‘艮菴’은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귀의한다.’는 뜻이다. 유몽인은 자신의 문집을 《艮菴集》이라고도 하였다.

36) 『周易』 坎卦(☵), “象曰, 習坎, 重險也, 水流而不盈. 行險而不失其信.”

제거되어 마음이 편안한 상황을 말하였다.(주역에서 乾卦는 임금을 비유한다. 兌卦는 연못으로 ‘기쁨’을 뜻하고, 巽卦는 바람으로 ‘겸손’을 뜻한다.) ④에서는 정엽과 한 마을에서 공부한 친한 사이임을 말하였다.<sup>37)</sup> 이어 봉당이 사라진 세상을 소망하였다. 상대방이 훗날에 득의한다면 봉당을 제거하고 ‘봉당이 없는 땅(無朋之地)’으로 자기를 불러 주기를 부탁하였다.(주역 후천8괘도에서 坎卦는 북쪽, 離卦는 남쪽, 辰卦는 동쪽, 兌卦는 서쪽을 나타낸다.)

### 3) 중국 사행제도 관련

유몽인의 증서류는 당시 중국 사행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605년 李尙信(1564~1610)을 전송하는 증서는 중국사행에서 삼사신 선발, 각 부서의 역할, 사행경비(노자) 조달 과정, 역관의 부정행위, 사행 노정의 고통, 사행노정의 주요 관광대상물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삼사신 선발과 각 부서의 역할을 언급한 부분이다.

사신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금관자와 옥관자를 단 관원 중에 저명한 자를 골라 상사와 부사로 삼고, 이어서 낭관 중에 평소에 명망을 쌓고 규찰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서장관으로 삼는다. 이조에서는 재주 있는 자를 뽑고, 호조에서는 사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며, 예조에서는 표문과 자문, 의물을 준비하고, 태복시는 말을 관리하며, 공조와 선공감에서는 여러 집기들을 챙긴다. 만일 이 중 한 가지 일이라도 혹여 지체되거나 잘못되면, 엄격한 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다.<sup>38)</sup>

37) 원문은 ‘麗澤乎里開者’이다. 주역에서 ‘麗澤’은 봉우가 함께 학문을 강습하여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周易』離卦(☲), “象曰, 麗澤, 兌, 君子以朋友講習.”

38) 『於于集』 후집 권3, 〈送李而立尙信赴賀冬至于燕京序〉. 其選使必於金玉班著名者, 爲上爲副, 次就郎僚中蓄素望堪風憲者, 官書狀. 吏揀才戶辦行需, 禮備表咨

상사와 부사는 고위 관원중에 저명한 자를 선발하며, 서장관은 규찰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선발한다고 하였다. 사행 전에 이조, 호조, 예조, 공조 등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도 서술하였다. 만약 업무에 잘못이나 지체가 있으면 엄격한 국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중국사행은 국가의 중차대한 일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성상이 대국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말고, 당세의 명망을 실추시키지 말며, 사신의 책무를 다하고, 역관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시오. 남아가 평소 품고 있던 장대한 뜻을 이루고, 팔도에서 주는 노자가 부족한 것을 마음에 두지 말며, 추운 사행 길에 건강을 보살피어 산 넘고 물 건널 적에 조심하시오. 늙은 친구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잘 다녀오시오.<sup>39)</sup>

글 말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당부를 하였다. 앞 부분은 공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당부이며 뒷 부분은 사적인 당부이다. 상대방에게 조목조목 부탁하는 모습에서 친구에 대한 애뜻한 정이 느껴진다. 팔도에서 주는 노자의 부족함에 신경쓰지 말라는 말에서는 사행길의 물자가 풍족하지 못했던 정황을 느낄 수 있다.

1610년 동지사 兪大楨(1552~1616)을 전송하는 글도 중국 사행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 역관의 부정행위를 언급한 부분이다.

예전에 윤 부원군 월정공이 서장관으로서 사헌부의 직책을 겸하여 사행을 떠났다가 역관 郭之元과 함께 돌아왔는데, 산해관에 머물며 강을 건너기를 꺼려

儀物，太僕進退馬，工繕什器諸種，苟一事或滯緩窳苦，邦有憲甚常憲。

39) 상동, 其母忘聖上事大, 其母落當世聲望, 其盡責專對, 其母使舌人橫肆. 其遂男兒平生壯志, 其勿介懷八道資行之儉嗇, 其以寒路攝保跋涉爲愼. 其以老友言爲記行矣, 好往還.

하며 말하기를, “듣자니, 객지원이 은자 2천으로 북경에서 무늬가 있는 비단을 구입하여 그 수레가 줄지어 수십 대라고 하는데, 지금 모두 불태우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객지원은 즉시 수레를 버리고 노새로 바꾸어 자신을 오나라와 초나라의 상인이라 속이면서 낮에 산해관의 여러 관운에게 점검받고 나가는데, 윤 부원군은 긴장하고 마음을 졸였으나 마침내 간사한 짓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sup>40)</sup>

郭之元은 명나라에 다녀올 때 정사 沈通源과 결탁하여 다량의 은량을 가져와 대간의 탄핵에 의하여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자이다. <명종실록> 11년(1556년) 11월 1일~2일條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이 나온다. 史官은 이는 모두 기강해이에서 나온 것이라 기록하였다.<sup>41)</sup> 유몽인은 지금은 그때보다 기강이 더 해이해졌다며 통탄하였다. 또 자신의 3차례 중국사행을 떠올리며 역관의 부정과 횡포가 점차 심해졌음을 말하였다.<sup>42)</sup> 중국관원이 조선사신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정황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

40) 『於于集』 권3, <送冬至使俞景休大楨序>, 向時尹府院月汀公官書狀兼憲以行, 偕舌人郭之元還, 舍山海關不肯度曰, 聞郭用二千銀, 貨北京文錦車連數十軫, 今不火, 吾不出. 郭便舍車賁贏, 騙稱吳楚之商, 白日點諸關尹以出, 尹煎如灼如, 卒無如奸何.

41) 《明宗實錄》 11월 1일조에는 성절사 尹釜가 중국사행에서 귀환하여 예부주객청리사 제독주사의 체문(帖文)을 조정에 보고한 내용이 나온다. 조선 사신의 수행원들이 사리에 급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銀物을 수수하여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史官은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탐욕스런 풍조가 날로 심해져 중국사행 때에 금지품을 많이 가져 가서 물자를 교역하는 것이 장사야치고 다름이 없으며, 이 때문에 사신의 체면을 손상시켰으니 통탄스런 일이라 논하였다. 《明宗實錄》 11월 2일조에는 사헌부에서는 역관이 금지된 물품까지 무역하는 폐단을 아뢰었고, 사간원에서는 사행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폐단을 아뢰는 내용이 나온다.

42) 유몽인의 역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조천시>에서도 확인된다. 윤세형, 『유몽인의 朝天詩에 나타난 인식 고찰』, 『열상고전연구』, 72, 2020, 203~204쪽 참고. 객지원에 대한 언급은 『어우야담』 <역관 객지원과 홍순언의 의로운 행동>(371화)에도 나온다.

선사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심해진 이유는 임란의 경험으로 인한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라의 법도를 내걸어 아래 관리들을 단속하여 나라의 법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짓을 못하게 하고, 우리 전대에 합당치 않은 물품을 훤히 알아 강에서는 통행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거미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아전들은 공손하게 물러가게 하여 꼭지된 같은 역관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오.<sup>43)</sup>

글 말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부탁을 하였다. 서장관 유대정에게 다섯 가지의 엄한 법 집행을 당부하였는데 그중 중국인이 조선인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짓을 못하게 하라는 말이 눈에 띈다.

1617년 동지사 부사 李昌庭(1573~1625)을 전송하는 글은 중국 유학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서두에서는 고려 때 이색이 원나라에서 장원 한 일과 신라 때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벼슬살이 한 일을 거론하며 지금은 중국에 유학할 길이 막힌 지 수백 년이 흘렀다 하였다. 이어서 수십 년 전 중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주청하는 논의를 조정에서 하였는데 임란을 만나 중지되었다며 안타까워하였다. 글 후반부이다.

이군은 志氣가 있어 일을 잘 수행하여 국사에 대해 정성을 다 바칠 것이니, 담당 관리와 의논하고 이문에 지문을 구하고 성스러운 천자에게 주청하여 우리나라가 전조의 성대한 일을 회복시키도록 하지 않겠는가. (중략) 만약 이번 사행을 잘 수행하여 우리나라에 기량을 품고 도를 지닌 자들이 대국에서 재주를 드러내어 천하에 발걸음을 내디디어 동해 부상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황금대에 이르게 하고 태액지의 물결이 동쪽으로 우리나라에 흐르게 한다면, (중국어) 우

43) 상동, 其揭邦憲以東下徒, 毋干國約禁, 毋俾華人入我, 明瞭我橐不物, 使江不能樞, 車馬不能鉗, 胥徒拱手退, 無若見賣郭舌人.

리나라를 비호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sup>44)</sup>

상대방에게 중국에 가면 천자에게 주청하여 ‘前朝의 성대한 일’을 회복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전조의 성대한 일은 곧 중국에 유학을 하고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몽인은 기량을 품은 조선인이 대국에서 재주를 드러내어 조선과 중국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였다. 좁은 조선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재능을 펼치고 싶은 유몽인의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1608년 朴東說(1564~1622)을 전송하는 증서에서도 유몽인은 문금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과 중국 유학의 열망을 표출하였다.<sup>45)</sup> 유몽인은 내복과 외복의 구분 없이 조선과 중국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세상을 고대하였다. 자기는 통역도 필요 없이 언어가 통할 것이므로 중국 방방곡곡을 유람하며 명망있는 중국 인사를 만나 교류하기를 꿈꾸고 있다. 편협한 조선땅에서 펼치지 못한 재능을 대국땅에서 실현하기를 희망한 것이다.<sup>46)</sup>

#### 4) 경세적 인식

유몽인은 확고한 성리학적 명분론이나 의리론보다는 현실적인 경세관에 탁월한 자였다.<sup>47)</sup> 유몽인은 세 차례의 연행을 통해 명의 선진문물에 관

44) 『於于集』 권3, 〈送冬至使李昌庭序〉, 李君有志氣, 能幹事於國事盡誠悃, 何不謀之有司, 咨之衙門, 奏之聖天子, 使東方復前朝盛舉乎. (중략) 如使得遂此事, 使我邦懷器抱道者, 售才大邦, 展武於天下, 使樽桑之影, 西達於金臺, 太液之波, 東漸於青邱, 其裨補本國, 資藉大邦, 爲如何哉.

45) 『於于集』 권3, 〈送朴說之東說赴京序〉 참고.

46) 『於于集』 권4, 〈送僚伯李校理朝天序〉에서도 문금 해제를 직언하는 글을 중국조정에 올릴 것을 부탁하고 있다. 상대방은 李暉光(1563~1628)으로 추정된다. 이수광은 3차례(1590년, 1597년, 1611년) 중국사행을 하였고 벼슬이 교리직을 거쳤다.

47) 한명기, 「유몽인의 경세론 연구」, 『한국학보』 67, 1992, 130쪽.

심을 가지고 임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 개혁가였다.<sup>48)</sup> 유몽인은 임란중에 세차례 순무어사직을 수행하며 전란속에서 조선 사회의 제반 모순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유몽인 경세적 인식의 기반이 되었다.

1612년李志完(1575~1617)을 전송하는 증서는 중국의 선진문물 도입 사상이 나타나 있다. 우언의 형식을 빌었으며 쌍괄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내가 듣건대 말은 알을 까고 개구리는 꼬리가 있으며 거북이 등의 털이 석자라고 하니, 진실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억조로 헤아린다면 부족한 것이 되고, 진실로 있는 것을 한 냥으로 헤아린다면 넉넉함이 있을 것이다. 천하의 일이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sup>49)</sup>

서두에서는 말이 알을 까고 개구리는 꼬리가 있으며<sup>50)</sup> 거북이 등에는 털이 있다는<sup>51)</sup> 장자풍의 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유몽인은 ‘없는 것’을 億兆로 헤아린다면 ‘넉넉함이 없을 것[不裕]’이고, 이와 반대로 ‘있는 것’을 한 냥으로 헤아린다면 ‘남음

48)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文學교류 연구-晚明 文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대 박사학위 논문, 2011, 148쪽.

49) 『於集』 권3, 〈送斗峯李養吾驪城君志完赴京序〉, 余聞, 馬有卵, 丁子有尾, 龜背之龜長三尺, 信乎. 無之而計之億兆, 爲不裕, 有之而筭之一兩, 爲有剩. 天下之事, 大率類之.

50) 『莊子』〈天下〉에 나오는 말인데, 惠施가 궤변을 언급하며 제시한 명제들이다. “알에 털이 있다. 닭에는 세 개의 발이 있다. 초나라 영에 천하가 있다. 개는 양이 될 수 있다. 말은 알을 깐다. 개구리에 꼬리가 있다.[卵有毛. 鷄三足. 郢有天下. 犬可以爲羊. 馬有卵. 丁子有尾.]”고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주석 참조.

51) 앞서 언급된 헤세의 궤변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楞嚴經》에서 “거북이가 털이 나고 토끼가 뿔이 났으니, 이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라고 하였는데, 본디 전쟁의 징조를 말하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한국고전종합DB》 주석 참조.

이 있을 것[有剩]’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유몽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다고 헤아리는 허세의식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을 왕래하는 수레가 배와 등처럼 서로 이어져 표문을 받들고 가는 사신 행차가 한 해에 네댓 번이라 조정을 가득 채운 고관들 태반이 주나라를 살피고 온 인사들이다. 그런데도 중국을 본받아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정사를 한 사람도 건의하여 일변시키는 경우가 없으니 안타깝도다. 저 깊은 궁궐 안의 한 분도 섬돌 아래까지 발걸음을 떼지 않으니, 나라를 다스림이 이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가. 중국을 말함에 또한 이 정도에 그치겠는가. 아! 우리나라 조정에서 논의하는 계책은 그저 말이 깐 알, 개구리의 꼬리, 거북이 등의 석 자 털에 불과하구나. 가거라 두봉공이여, 중국의 대인들로 부터 나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돌아올지어다.<sup>52)</sup>

이어지는 글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중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고관들 태반이 중국을 건문하였지만 중국을 본받아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정치를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사행의 건문을 실질적인 경제 정책에 적용하지 못하는 관료에 대한 비판이다. 깊은 궁궐 안에 있는 한 분은 섬돌 아래까지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백성과 同苦同樂<sup>53)</sup>하지 않는 광해군에 대한 은근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말미에서는 서두의 우언을 다시 제시한다. 이 우언은 실질적인 민생에 힘쓰지 않고 헛된 공로만 일삼는 조정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다.<sup>54)</sup> 상대방

52) 상동, 今者車軌交結, 腹背相連, 奉表之臣, 歲四五輩, 滿朝簪紳, 大半觀周之餘土, 而裕民足國傲中國, 無一士建白而一變之, 哀哉. 彼淵濶深宮之一人, 玉趾不下於鉤砌, 而其謂爲國, 止於斯已歟耶. 其謂中國, 亦如斯止歟耶. 吁, 我國廟堂之謨, 馬之卵耶, 丁子之尾耶, 龜背之三尺蠶耶. 去乎斗峰公, 學爲國於中國之大人來.

53) ‘與民同樂’은 왕도정치의 핵심으로 『孟子』〈梁惠王 下〉 1장에 나온다.

54) 김홍백은 여기에 등장하는 우언을 ‘상대주의적 사물 인식’이라며, 이는 조선이 중국

에게 중국의 대인들로부터 나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돌아오라는 부탁에서 유몽인의 실용적인 선진문물을 도입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다만 근래의 군사를 다스리고 재물을 생산하는 두 가지 일은 유독 부족하여 중국과 같지 않다. 내실을 닦지 않아 외침을 맞이한 일은 마치 거울을 닦고서 얼굴을 비추어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이 때문에 왜적의 침략을 받아 온 나라가 물고기가 문드러지고 새가 놀라 흩어지듯 하였다. 왜란이 끝난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도,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빈 상태가 이와 같다.<sup>56)</sup>

1609년 韓德遠(1550~1630)을 전송하는 증서에서 유몽인은 조선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군사를 다스리고[治兵]’ ‘재물을 생산하는[生財]’ 두 가지 일로 보았다. 이를 닦지 않아 임진왜란을 맞은 것이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왜란이 끝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었다며 한탄하였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 정사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점이지만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 치료하지 않으면 끝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니 국가를 경영하는 자가 심각하게 근심할 점이다. 지금 공께서 중국에 가시면 일마다 살펴보시게. 이쪽이 저쪽보다 뛰어난 점이 있겠지만, 유독 治兵과 生財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이니 모조리 배워야 마땅하네. 만약 그 제도에 대해 자세히 묻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시행한다면 어찌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sup>57)</sup>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는 역설적 진술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김홍백(2014), 앞의 논문, 183쪽~195쪽 참조

55) 1604년 尹敬立(1561~1611)을 전송하는 증서에서도 유몽인의 실용적인 선진문물을 도입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於于集』 권3, 〈送冬至使尹僉知存中敬立序〉 참고.

56) 『於于集』 후집 권3, 〈贈別韓侍郎德遠使上國謝恩序〉, 獨比來治兵生財二事, 虛獻不類. 蔑內實傲外侮, 較然若拭鏡而看面. 用是見一海寇, 舉國魚爛鳥散. 亂已殆二十年, 耗匱懸罄若是.

治兵과 生財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심각하게 근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대방에게 중국에 가면 이 두가지 일을 잘 관찰해서 배워오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에 시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제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1614년 李善復(1575~1621)의 공주목사 부임을 전별하는 글은 중국사행 관련 증서류가 아니지만 중국 사행에서 보았던 稅田, 役民, 養兵을 부임지에 시행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8)</sup>

#### 5)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於于集』에는 중국사행을 전송하는 送詩 12편이 별도의 수록되어 있다.<sup>59)</sup> 대다수의 송시에서 유몽인은 과거 중국사행에 대한 반추와 현재 불우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여기에서는 유몽인의 내면의식과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 두 작품을 살펴보겠다.

1610년 사행을 떠나는 韓德遠(1550~1630)을 송시 7언율시 2수로 전송했는데 유몽인의 내면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첫째수 미련에서에서는 상대방의 壯遊를 부러워하는 한편 자신을 ‘거품 뿜는 물고기 신세’로 비유해 비탄해하였다.<sup>60)</sup> 다음은 둘째수이다.

57) 상동, 茲兩者, 我國之政之最難醫, 而亦不容不醫者. 苟不醫, 卒無國, 營公國者所大戚. 今公如中國, 試諦視諸, 事事事, 此強彼多, 獨兵財大懸, 宜悉可學. 如細咨其制作, 歸施之我國, 豈非大有補乎哉.

58) 『於于集』 후집 권3, 〈送公州使君李伯吉善復令公詩序〉 참고. 글의 말미에 ‘공이 예전에 중국을 본 경험이 있으니(公嘗目于中國者)’라는 말대로라면 이선복이 중국사행을 하였을 것이나 그의 중국사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59) 『於于集』 권1에 3편, 『於于集』 후집 권1에 6편, 후집 권2에 3편이 수록되어 있다.

60) 『於于集』 후집 권2, 〈送謝恩副使韓德遠〉, “雄觀知有大方樂/向沫窮魚良獨冤(웅장한 경관에 그대는 대방의 즐거움 알 것인데, 거품 뿜는 물고기 신세 참으로 홀로 원통하네)” ‘向沫’은 《莊子》〈大宗師〉에 나오는 용어이다.

遷鼎幽燕鎮上游	유연으로 도읍을 옮겨 상유를 지키어 <sup>61)</sup>
朝宗塗密我何憂	조회가는 길 <sup>62)</sup> 가까우니 내 무엇을 근심하리
茲行人道經年返	이번 사행 해를 넘겨 돌아온다 하는데
去歲吾仍三月留	지난해에 나도 석 달을 머물렀었네
絳闕祥煙魂夢爽	황궁의 상서로운 연기는 꿈에서도 또렷한데
滄波偏壤姓名羞	동해의 좁은 땅에서 이름이 부끄럽구나
山巒絕物秋風晚	세속 단절한 산속 집에 가을바람 저무는데
心逐征鞍徧舊遊	마음은 가는 말 좇아 옛 유람 두루 다니노라 <sup>63)</sup>

시 전반부에서는 지난해 중국사행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산 속에 칩거하고 있는 자신의 처연한 심사를 드러내었다.<sup>64)</sup> ‘동해의 좁은 땅에서 이름이 부끄럽다’는 말에서 유몽인의 불우한 내면의식이 극명히 드러나 있다.

1619년 서장관 金起宗(1585~1635)을 전별하는 송시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sup>65)</sup>

(전략)

況復遼左風塵暗    계다가 요동에선 전쟁 먼지 자욱하여

61) 이 구절은 남경에서 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말이다. 북경이 전국시대엔 연나라에 속했고, 당나라 이전엔 유주에 속했기 때문에 ‘幽燕’이라 칭해진다. ‘上游’는 ‘上流’와 같은 뜻으로, 국가의 중요한 지역을 뜻한다. 《漢語大詞典》, 《史記·項羽本紀》, 古之帝者地方千里, 必居上游.

62) ‘朝宗’은 고대에 제후가 봄과 가을에 천자를 뵈는 의식을 말한다. 《漢語大詞典》, 朝宗: 古代諸侯春、夏朝見天子, 後泛稱臣下朝見帝王.

63) 『於集』 후집 권2, 〈送謝恩副使韓德遠〉.

64) 당시 유몽인은 3차 중국사행에서 돌아와 남산에 퇴거해 있는 상태였다. 당시 유몽인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이승수(2013), 앞의 논문, 참고.

65) 당시 사행에서 정사는 李弘胄, 부사는 金壽賢이었다. 《光海君日記》 11년(1619) 1월 2일, 謝恩使以李弘胄爲謝恩使, 金壽賢副使, 金起宗書狀官.

二俘讐庭甘屈膝	두 포로가 원수의 조정에 기꺼이 무릎 꿇었네
衣冠之府血氣恥	의관을 한 우리나라 사람 혈기의 수치이니
愧我二百年禮樂	이백 년 내려온 우리의 예악에 부끄럽구나
今行不特趁賀列	이번 사행은 축하 반열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應事酬機乃其責	일에 따라 잘 대응하는 것이 바로 그 책무라네
去矣書狀官好歸	서장관은 떠났다가 무사히 돌아오시게
別後相思不須說	이별 뒤 그리움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
千秋令節天中近	천추영절이 추분에 가까우니
八月仙槎灣上急	팔월의 사신 행차 의주에서 바쁘리라
行輪若望柳下過	사신 수레 만약 버드나무 아래 지나거든
爲我一慰將軍魄	나를 위해 장군의 넋을 위로해 주시게나 <sup>66)</sup>

7언 장시로 전송하였는데 그 중 후반부이다. ‘두 포로’는 1619년 심하전투에서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 정벌에 나섰던 姜弘立과 金景瑞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후금의 조정에 무릎 꿇은 행위는 혈기의 수치로 이백 년 내려온 예악에 부끄럽다고 비판하였다.<sup>67)</sup> 그런데 ‘일에 따라 잘 대응하는 것[應事酬機]’이 이번 사행의 책무라고 하였다. 말미에서는 버드나무 아래 지나거든 자기를 대신해 장군의 넋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장군은 金應河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8)</sup>

유몽인은 명에 대해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인식을 보였던 자였다.<sup>69)</sup> 그러나 이 시에서 유몽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명과

66) 『於集』 후집 권2, 〈奉別金員外起宗朝天之行〉.

67) 1618년 후금이 세력을 확장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청해왔다. 조선은 姜弘立을 도원수로 삼고 金景瑞를 부원수로 삼아 군사 2만 명을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였는데, 이 둘은 1619년 심하 전투에서 대패한 뒤 후금에 투항하였다.

68) 강홍립의 좌영장이었던 金應河는 심하전투에서 버드나무를 등지고 단신으로 수백 명의 적을 죽인 뒤에 창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69) 윤세형(2020), 앞의 논문, 203~204쪽 참고.

후금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던 광해군의 실리외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 3. 결론

유몽인은 3차례 중국사행을 하였다. 유몽인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17세기 초반 문인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글을 남겼다. 유몽인은 시에도 뛰어났지만 그보다도 문장을 더 중요시하였다.(『於于集』 후집 권4, 〈答崔評事有海書〉 참고)

유몽인은 ‘내가 연경에 간 것이 세 번’이라며 증서류 곳곳에서 자신의 중국사행 경험을 언급하였다. 유몽인은 또 두 차례 접반사 활동을 통해 이여송, 주지번, 양유년 등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도 하였다. 유몽인은 1609년 조카 柳湊과 열흘 간격으로 사행을 떠났는데 이때 조카를 위한 별장첩 서문에서 자기 집안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음을 열거하면서 “우리 집안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랏일을 밝게 드러낼 수 있었겠느냐”며 자랑하였다.(『於于集』 권3, 〈柳書狀別章帖序〉 참고) 또 『어우야담』에는 사행 관련 이야기가 약 65편 수록되어 있다.<sup>70)</sup> 유몽인의 일생이 중국사행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몽인은 산문중에서도 특히 증서류에 공을 많이 들였다. 안세현은 유몽인의 산문은 『於于集』 소재 249편과 필사본 『默好稿』에 있는 9편을 합쳐 총 258편인데 그 중에서 증서류 산문이 87편으로 1/3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유몽인이 지방에 부임하는 자에게 써 준 증서류는 총 36편이다. 유몽인이 이렇게 많은 증서류를 쓴 까닭은 무엇일까? 유몽인은 증서류를 통해

70) 한태문, 『어우야담에 반영된 사행관련 이야기 연구』, 『한국문학논총』 85, 한국문화회, 2020, 8쪽.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아낌없이 드러내었다. 증서류 작성은 회재불우의 고뇌에서 오는 욕구 해소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유몽인이 3차례 중국사행에서 남긴 240여수의 조천시를 분석하였었다. 유몽인의 중국사행 전승 증서류와 조천시는 회재불우의 자의식, 경세적 인식, 중국사행에 대한 인식 등 공통점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증서류는 형식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국사행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특성을 지닌다. 필자의 분석상의 미진한 점은 후속 논문에서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於于集』

『月沙集』

『孟子』

『論語』

『周易』

『莊子』

『於于野談』

《明宗實錄》

《光海君日記》

《漢語大詞典》

《한국고전종합DB》

### 2. 단행본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서, 1998.

장유승 외, 『어우집』 1~5, 한국고전번역원·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6.

### 3. 학술·학위논문

김홍백, 『유몽인의 1623년』, 『한국문화』 74, 2016.

김홍백, 『유몽인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183쪽~195쪽.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晚明 文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대 박사학위 논문, 2011, 148쪽.

안세현, 『유몽인의 증서류 산문 연구』,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9.

윤세형, 『유몽인의 朝天詩에 나타난 인식 고찰』, 『열상고전연구』 72, 2020, 203~204쪽.

이승수, 『1608년 남산 아래 유몽인의 처지와 심경-終南散閑錄 散考-』, 『한문학 논문집』 37, 근역한문학회, 2013, 31~53쪽.

- 이승수, 『1609년 여름 유몽인 여행길의 몇 장면—압록강에서 광녕까지』, 『고시  
가연구』 3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2, 209~211쪽, 235쪽.
- 이승수, 『여행로의 문명로적 위상 검토, 그 의의와 한계—17세기 초 유몽인의  
산문을 중심으로』, 『언어문화』 4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183~210쪽.
- 이승수, 『유몽인의 여행체험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3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321~355쪽.
- 한명기, 『유몽인의 경세론 연구』, 『한국학보』 67, 일지사, 1992, 130쪽.
- 한태문, 『어우야담에 반영된 사행관련 이야기 연구』, 『한국문학논총』 85, 한국  
문학회, 2020, 8쪽.

ABSTRACT

A Study on the Yoo-mong-in's farewell prose related  
diplomatic trip to China

Yoon, Se-hyung\*

Yumong-in was a governor and writer who left notable writings in various areas of Joseon's politics and military, socio-economic, academic, ideological, and literary during the turmoil at home and abroad.

Yumong-in went to China three times. There are a total of 24 documents left which Yumong-in wrote to the envoys to China. The document is not only extensive in content, but also shows the nomad's perception. In this paper, the documents of a nomadic man were divided into five items, including pride and recognition of being talented but unhappy, recognition of the poor in sentences, criticism of the Bungdan system, perceptions related to Chinese affairs, governmental perceptions, and perceptions of the situation of the times.

Yumong-in wrote many documents to the envoy leaving China at the time, and through his documents, he showed pride in his senten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isadvantaged.

There are many contents criticizing the Bungdang system in the nomad's certificate. In the certificate written to Wolsa Lee, the psychological state of a nomadic person who is troubled with the problems of friendship and Bung-dang.

The nomad's certificate provided meaningful information on the Chinese speculation system at the time. It looked at the selection of the members of envoys, the roles of each department, the procurement of speculative expenses, and the misconduct of the officer. It also confirmed the strong criticism of the nomads' literary system and their desire to study in China.

---

\* Semyung University.

There were many practical ideas of introducing advanced civilizations in the documents of the nomads. You can confirm the nomad's political perception in the request to learn to rule the country in China and return.

In 『於于集』, there are 8 separate episodes which Yumong-in wrote to the envoys to China. I looked at 2 pieces. In the 送詩 in 1619,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situation of the nomadic times in a situation where the power of early Qing Dynasty became stronger.

**Key Words** Yoo-mong-in, diplomatic trip to China, farewell prose, party politics, economical awareness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

## 별첨

## 〈도표#1〉 중국사행 贈序類 목록

	『於于集』	제목	년도	대상인물	송시 형식
1	전집 권3	送戶部尙書李聖徵廷龜奏請天朝詩序	1616	李廷龜(1564~1635)	7율 1수
2		奉別謝恩奏請使李月沙廷龜四赴燕山詩序	1619	李廷龜(1564~1635)	7율 5수
3		別冬至副使睦湯卿大欽詩序	1616	睦大欽(1575~1638)	7율 1수
4		愛直送趙遂初存性賀冬至于燕京序	1612	趙存性(1554~1628)	無
5		送柳老泉潤朝天詩序	1608	柳潤(1554~1621)	7율 1수
6		贈李聖徵廷龜令公赴京序	1604	李廷龜(1564~1635)	無
7		送朴說之東說赴京序	1608	朴東說(1564~1622)	7율 1수
8		送斗峯李養吾驪城君志完赴京序	1612	李志完(1575~1617)	無
9		送冬至使尹翊知存中敬立序	1604	尹敬立(1561~1611)	無
10		送聖節使書狀金大德序	1610	金大德(1577~1639)	4언시
11		送冬至使俞景休大楨序	1610	俞大楨(1552~1616)	7율 2수
12		送申佐郎光立赴京序	1604	申光立(1567~1608)	無
13		送冬至使李昌庭序	1617	李昌庭(1573~1625)	無
14	전집 권4	送高書狀用厚序	1613	高用厚(1577~?)	無
15		送僚伯李校理朝天序	1597	李晬光(1563~1628)	7율 1수
16	후집 권3	送李而立尙信赴賀冬至于燕京序	1605	李尙信(1564~1610)	無
17		送聖節使李同樞立之春元序	1620	李春元(1571~1634)	7율 1수
18		贈別韓侍郎德遠使上國謝恩序	1610	韓德遠(1550~1630)	無
19		送金書狀鑑赴京歌序	1617	金鑑(1566~?)	歌 1수
20		送冬至副使鄭令公谷神子士信序	1610	鄭士信(1558~1619)	7율 1수
21		別金藥山偉男賀千秋詩並引	1610	金偉男(1563~1618)	5언1수, 7율 1수
22		送鄭時晦曄赴京序	1598	鄭曄(1563~1625)	無
23		奉驢冬至副使申季收令公詩序	1608	申涌(1561~?)	7율 10수
24	후집 권4	燕京沿路可遊者記送冬至副使尹叻可晦參知	1604	尹叻(1563~1640)	無

## 〈도표#2〉 중국사행 送別詩 목록

	『於于集』	제목	년도	대상인물	송시 형식	비고
1	전집 권1 <西繡錄>	龍川別尹書狀曄赴京	1618	尹曄(1571~1644)	7율 2수	
2	<西價錄>	送李書狀楊	1606	李楊(1569~1637)	7율 1수	
3	<銀臺錄>	送閔正言德男赴京	1615	閔德男(1564~1659)	7율 1수	閔驛男으로 개명
4	후집 권1 <玉堂錄>	送李正郎斗峰養吾志完赴京	1612	李志完(1575~1617)	5언장시 (130운)	贈序 별도로 있음
5	<銀臺錄>	送鄭晦甫穀令公赴京	1604	鄭穀(1559~?)	7율 1수	
6	상동	獻贈李書狀命俊	1604	李命俊(1572~1630)	7율 1수	
7	<西價錄>	別進賀上使閔致雲	1606	閔夢龍(1550~1618)	7율 1수	致雲은 자
8	상동	敬驢進賀副使柳右尹思瑗	1596	柳思瑗(1541~1608)	7율 1수	
9	<騎省錄>	送別千秋使洪德公慶臣令公	1606	洪慶臣(1557~1621)	7율 1수	
10	후집 권2 <拾遺錄>	奉別金員外起宗朝天之行	1619	金起宗(1585~1635)	7언장시	
11	상동	送冬至副使鄭士信	1610	鄭士信(1558~1619)	7율 1수	贈序 별도로 있음
12	상동	送謝恩副使韓德遠	1610	韓德遠(1550~1630)	7율 2수	贈序 별도로 있음